

九竅에 대한 研究

- 水平과 垂直의 관점을 위주로 -

A study on the nine orifices - from horizontal and vertical views -

姜政秀*

I. 序論

竅란 孔竅로서 인체의 外界와 連連되는 孔竅를 말하며, 九竅를 포괄한다¹⁾. 즉 인체의 내부의 상황을 외계로 표출하고 반응하여 주는 구멍을 말한다.

九竅²⁾는 “眼二, 耳二, 鼻孔二, 口, 前陰尿道와 後陰肛門을 말함”과 “眼二, 耳二, 鼻孔二, 口, 舌, 喉를 말함³⁾”의 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上七竅와 下二竅를 말한다.

《靈樞·邪客篇》⁴⁾에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라 하여서 天人相應하는 예시 중에 땅의 九州에 사람의 九竅를 비유하였다. 《靈樞·脈度篇》⁵⁾에서는 “五藏常內關於上七竅也. 故肺氣通於鼻, 肺和則鼻能知臭香矣. 心氣通於舌, 心和則舌能知五味矣.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變五色矣. 脾氣通於口, 脾和則口能知五穀矣. 腎氣通於耳, 腎和則耳能聞五音矣. 五藏不和則七竅不通, 六

府不和則留爲癰.”이라 하여 五臟의 상태를 五官, 즉 七竅를 통하여 발현이 됨을 서술하였고 다시 上七竅의 不通은 五臟의 不和를 나타내고 六腑의 不和는 癰이 된다고 하였다.

《醫學入門·臟腑總論》⁶⁾에서는 “天六府, 氣表, 其體在上, 其用在下(膽胃膀胱大腸小腸). 地五藏, 血裏, 其體在下, 其用在上(耳目口鼻).”이라 하여 하늘을 상징한 六腑는 위에서 아래하기 때문에 下二陰인 前陰과 後陰을 통하여 반응을 하여 주고 땅의 상징인 五臟은 아래에서 위로 하기 때문에 上七竅인 耳目口鼻에서 五臟의 反應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耳目口鼻와 前陰, 後陰에 대하여 上下左右의 상호관계와 가로, 세로의 動靜關係를 상호 분석하여 인체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는지는 아직 규명이 된 바가 없다. 이에 著者는 九竅에 대하여 水平性和 垂直性的 관점을 위주로 분석을 하고 다시 上竅와 下竅와의 관련을 살피기 위하여 본 논문을 작성하였다.

*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1) 金定濟·洪元植: 漢醫學辭典, 서울, 성보사, 1983, p.115.
- 2) 金定濟·洪元植: 漢醫學辭典, 서울, 성보사, 1983, p.115.
- 3) 《難經·二十七難》에 있음
- 4)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98.
- 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5.

II. 本論

1. 水平과 垂直의 이해

6) 李樾: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91.

수평과 수직의 이해는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다. 수학에서도 이차방정식을 표시할 때 x축과 y축으로 구성된 수직선을 사용하며, 모든 사물의 표시 기점의 기준이 되는 것이 수평선과 수직선이 된다.

따라서 우리는 막연하게나마 수평선이 주는 안정감 있는 느낌과 수직선이 주는 엄격하고, 규율있고, 깨끗한 느낌을 이해할 수 있다.

《平面基礎디자인》⁷⁾에서는 수평선과 수직선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수평선에서 받은 인상은 무한으로 펼쳐지는 지평선, 안정감있는 대지 그리고 잠자리에 들어갔을 때의 안도감 등의 종합적 인상이 얽혀서 안정, 침착, 고요, 확대, 영원, 무한 등 그 어느 것이나 정적이고 소극적인 요소가 강하다.”

“수직선의 인상은 수평선과 똑같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를 가진 직선적이고 명쾌하게 해결된 인상을 강하게 준다. 그리고 다른 것과의 구별이 가능한 그러한 특성을 든다면 낙하, 상승의 순간성이 강한 운동력이 가해져 직접적이고 긴박한 긴장감을 표출하는 것이다.”

수평선은 안정감과 靜的 요소가 강함을, 수직선은 명쾌한 인상과 動的 요소가 강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수평선은 靜的 요소가 강함으로써 動하려는 바탕이 되고 수직선은 명쾌한 인상과 動的 요소가 강함으로써 靜하려는 바탕이 되는 것이다.

한의학에서의 수평과 수직에 대한 개념은 升降出入의 관점에서 나오기 시작하였다.

《素問·六微旨大論》⁸⁾에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라고 하여 出入은 神機의 작용이며 升降은 氣立의 작용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高⁹⁾는 “出入者,

往來無窮之義, 故非出入, 則天下之動物無以生長壯老已.”요, “升降者, 上下無方之義, 故非升降, 則天下之植物無以生長化收藏.”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出入은 주로 神的인 動物의 작용으로 보았으며, 升降은 氣的인 植物의 작용으로 보았다.

李¹⁰⁾는 위의 문장을 《醫學入門·運氣總論》에 “出入廢則神機化滅, 升降息則氣立孤危. 故非出入, 則無以生長壯老已; 非升降, 則無以生長化收藏. 是以升降出入, 無器不有, 四者常守, 反之則災害至矣.”라고 인용하였다.

이에 대한 李의 註는 다음과 같다. “出入者, 天地之呼吸也; 升降者, 天地之化氣也. 毛羽裸鱗介及飛走岐行者, 皆生氣根於身中, 以神爲動靜之主, 故曰神機. 金玉土石草木, 皆氣根於外, 假氣以成立, 故曰氣立. 根於中者, 生源繫天, 其所動浮皆神氣爲機發之主, 故其所爲也, 物莫之知, 是以神舍去則機息; 根於外者, 生源繫地, 故其生長, 化成, 收藏, 皆造化之氣所成立, 故其所出也, 物亦莫知, 是以氣止息則造化之道絕矣. 凡竅橫者, 皆有出入去來之氣; 竅豎者, 皆有陰陽升降之氣往復於中. 壁窓戶牖, 皆承來氣衝擊於人. 陽升則井寒, 陰升則井煖. 以物投井及葉墜空中, 翩翩不疾, 皆陰氣所礙也. 虛管漚滿捻上懸之, 水涸不出, 爲無勝氣而不能降也; 空瓶小口, 頓漚不入, 爲氣不出而不能入也.”

出入은 天地의 호흡이며, 升降은 天地의 化氣이다. 따라서 하늘에 근원한 神的인 동물은 出入을 위주로 하고, 땅에 근원을 둔 氣的인 植物은 升降을 위주로 하게 된다. 李挺은 이러한 升降出入이 단순히 動物과 植物의 呼吸氣化에만 適用되는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방면에 적용됨을 주장하였다. 그는 “凡竅橫者, 皆有出入去來之氣; 竅豎者, 皆有陰陽升降之氣往復於中”이라하여 가로로 난 구멍은 出入去來의 氣가 있고 세로로 난 구멍은 陰陽升降의 氣가 안에서 왕복한다고 표현한 것이다. 즉 인간인 우리는 가로로 된 입이나 눈은 動物的인 出入之氣를 사용하여서 動하고 세로로 된 竅인 귀나 코는 植物的인 升降之氣를 使

7) 權相玖: 平面構成을 中心으로 한 平面基礎디자인. 서울, 學文社, 1986, p.45.

8)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p.498.

9)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p.499.

10) 李挺: 前掲書(醫學入門) pp.74~75.

用하여 靜하게 되는 것이다.

2. 水平的 外竅(上七竅 중에서)

水平的인 外竅는 上七竅 중에서 目, 口唇이다. 水平的 外竅는 위에서 언급하듯이 “凡竅橫者, 皆有出入去來之氣”라고 하여 하늘에 근원한 神的인 動物은 出入을 위주로 하므로 옆으로 돌아다니는 動物을 聚象하여서 水平的 外竅 역시 動物처럼 動하는 外竅에 속하고 氣運의 出入을 위주로 사용하는 外竅에 속한다. 실제로 目과 口唇은 上七竅 중에서 움직이는 外竅이며 이들의 動的 作用을 통하여 氣의 出入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1) 目

(1) 目的 생성

目的 생성과 기능에는 五臟의 精이 관여한다.

五臟의 精氣가 눈으로 上注하여 骨의 精이 눈동자가 되고, 筋의 精이 黑睛이 되고, 血의 精은 絡脈이 되고, 氣의 精은 白睛이 된다. 肉의 精은 約束(眼瞼)이 되는데, 筋骨氣血의 精에 의하여 目이 이루어진다¹¹⁾.

눈의 視覺作用은 瞳子和 黑眼의 陰精과 白眼과 赤脈의 陽精이 모여야 정상적인 기능이 발휘된다. 곧 陰精과 陽精이 합쳐져야만 제대로 볼 수 있다.

眼瞼은 脾의 精氣와 胃의 精氣를 받아 五臟精의 집합체인 눈을 보호하고 조절한다. 膀胱經·胃經·膽經(足三陽經)의 발생지로 인체의 陽이 눈에서 나옴을 알 수 있다.

(2) 目과 臟腑·經絡 및 眼瞼과의 관계

① 目과 五臟六腑의 관계

눈은 五臟의 精氣에 의하여 생성되기 때문에 五臟病變의 外候가 될 수가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目は 肝의 지배를 받으며,

肝血의 공급에 의하여 시각기능이 유지되어진다. <素問·陰陽應象大論>¹²⁾에서는 肝은 눈을 주관한다고 하였고, <靈樞·脈度篇>¹³⁾에서는 肝氣는 눈으로 통하며 肝氣가 조화되어지면 눈은 五色을 판별할 수 있다고 하였다.

肝뿐만 아니라 心과도 상관성을 갖는다. 눈이 사물을 보기 위해서는 血의 滋養뿐만 아니라 心神의 지배를 받아야한다. 이에 <素問·解精微論>에서는 눈을 心의 竅라고 하였다¹⁴⁾.

脾는 後天의 근본으로서 水穀精微를 운반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눈은 脾에 의하여 자양을 받는다. 後天의 滋養이 부족해지면 눈은 사물을 볼 수 없다. 肺는 氣를 주관하는데, 肺의 기능이 저하되면 精氣가 눈으로 上注하지 못하여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 腎은 精을 藏하고 있으며 腎精이 충실해야만 눈빛이 날카롭고 영민하다¹⁵⁾. 이처럼 눈은 脾·肺·腎과도 관련이 있다.

② 目과 經絡과의 관계

十二經脈과 三百六十五絡의 氣血은 모두 上走하며 空竅로 주행한다. 그 중의 精微한 陽氣는 눈으로 上走하여서 睛이 된다. <靈樞·口問篇>에는 눈은 宗脈이 모이는 곳이라 하였다¹⁶⁾. 目的 內眥는 太陽經이 일어나며, 目的 銳眥는 少陽經이 일어난다. 目的 內眥는 太陽經이며, 下瞼은 陽明經이다. 12正經의 8經絡과 奇經八脈의 4經脈이 눈과 밀접하게 관계하며, 心經과 肝經은 눈을 가로질러서 지나가므로 특히 중요하다¹⁷⁾.

이처럼 經絡은 五臟六腑와 눈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며, 精氣의 운반통로가 된다. 특히 눈의 血絡은 孫絡이기에 가장 먼저 病變을 반영해 주는

11) 洪元植 編: 前掲書(靈樞), p.342.

“五臟之精氣, 皆上注于目而爲之精. 骨之精爲瞳人, 筋之精爲黑睛, 血之精爲絡脈, 氣之精爲白睛, 肉之精爲約束, 是以筋骨氣血之精, 共成其目也.”

12) 洪元植 編: 前掲書(素問), p.23. / 肝主目

13) 洪元植 編: 前掲書(靈樞), p.115.

“肝氣通于目, 肝和則目能辨五色.”

14) 洪元植 編: 前掲書(素問), p.324.

“心者, 五臟之專精也, 目者其竅也.”

15)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4 p.70.

16) 洪元植 編: 前掲書(靈樞), p.159. / “目者, 宗脈之所聚也 上液之道也.”

17)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71.

역할을 담당한다.

(3)目の 기능

《靈樞·脈度篇》¹⁸⁾에서는 “肝氣通於目, 肝和則目能變五色矣.”이라 하여 눈은 사물의 형태와 색을 보는 視覺的인 감각을 담당한다. 사람이 外界에서 정보를 받는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視覺이므로 視覺은 인체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고 이 기능을目中서 하게 된다. 또한 이러한 視覺的機能은 肝氣가 눈에 開竅함으로써 가능하므로 눈을 통하여 肝臟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4)目の 垂直과 水平性的의 이해

눈은 肝에 開竅한다. 따라서 아무리 五臟六腑의 모든 氣가 目으로 上注하므로 五臟六腑의 모든 진단이 目中서 가능하다고 하지만 目的 가장 주된 五臟은 肝臟인 것이다. 따라서 肝臟의 반응을 곧 볼 수 있는 것이 目이 된다.

간장은 암적갈색이며, 그 형태는 대체로 썩기 모양으로 좌우경 약 20cm, 前後경 약 15cm, 높이 약 7cm이며, 무게는 약 1,100±200g이다¹⁹⁾. 이와 같이 肝은 가로가 세로(높이)보다 긴 좌우로 긴 水平性的의 臟器이다. 이는 肝의 外竅인 目도 역시 가로로 길고 세로로 짧은 水平性的의 外竅가 되어서 동일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水平性的의 형상은 하늘을 닮아 動物을 形象하여 움직이는 것에 있고 氣의 出入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특히 上七竅의 水平性 外竅임에도 입과는 달리 눈은 上眼胞가 움직인다. 顔面의 上部에 위치한 水平性 外竅로 上下 중 上部에 動的인 작용의 樞가 있으니 이에 따라서 眼의 眼胞를 土에 배속을 시키되 위의 움직이는 上眼胞를 陽土인 戊土에 아래의 움직이지 않는 下眼胞를 陰土인 己土에 配屬시키는 것이다.

2) 口唇

(1) 口唇의 발생

唇은 脾胃의 精이 뭉친 것으로 肉을 대변한다. 입은 脾胃의 精氣가 모여서 된 것이다.

(2) 口唇의 臟腑·經絡과의 관계

① 口唇과 五臟六腑와의 관계

입은 精을 脾에 저장하니 脾의 竅가 된다. 脾의 기능이 정상이면 입이 능히 五味를 알 수 있다²⁰⁾.

《素問·五臟生成論》에서 “脾는 肌肉과 합하며 입술로 발현된다²¹⁾”고 하였듯이 입술은 脾의 기능을 반영한다.

六腑의 발현은 입술에 있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脾, 胃, 大腸, 小腸, 三焦, 膀胱은 倉廩之本으로 營氣가 머무르는 곳이다. 그 榮華는 唇四白에 나타나며, 肝脈·督脈·衝脈·任脈이 모두 입술에 絡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脾는 입술을 담당한다. 또한 脾의 意志기능과 관계하므로 지혜의 유무도 알 수 있다.

上唇은 大腸기능과 관계한다. 大腸은 肺와 표리가 되며 肺는 宗氣와 氣魄을 담당한다. 이에 上唇으로 행위능력과 언행기능의 정상 여부를 알 수 있다.

下唇은 위장기능을 의미한다²²⁾.

上下唇의 사이는 肝膽기능과 관계하며 결단성의 여부도 나타난다.

② 口唇의 經絡關係

《靈樞·經脈篇》에 手陽明大腸의 脈은 입을 끼고 순환하고 人中에서 교차한다. 足陽明胃經은 입을 끼고 입술을 돌아 下行하여 承漿과 교차한다. 足厥陰肝經은 입술 내를 순환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외에도 任脈, 衝脈, 督脈의 순행이 모두 입술과 가까이 연결하고 있다. 또한 입술은 任脈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15.

19) 全國韓醫科大學 肝系內科學教授: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9, p.156.

20)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45.

21) 程上德: 素問注釋匯粹,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p.158.

22) 中醫疾病豫測學에서는 上唇은 腎, 下唇은 脾와 關係를 짓고 있다고 한다.

楊力: 前掲書, p.65.

과 督脈이 상호 교차하는 곳이다. 이처럼 胃經, 大腸經, 膀胱經, 腎經, 肝經이 모두 입에 絡한다. 膽經도 속으로 들어가 영향을 미친다.

(3) 口唇의 기능

입은 一身의 都門으로써 영양이 출입하는 門戶이다²³⁾. 말이 나오는 기관이다. 따라서 口唇의 機能은 땅에서 나오는 水穀之氣를 攝取하여 삶을 營爲하고 또한 言語를 發하여서 意思疏通을 하는 기능이 있다.

(4) 口唇의 垂直과 水平性的 이해

口唇은 脾의 外竅가 되어서 脾의 營養狀態를 口唇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한의학에서는 脾臟을 현대의학 개념의 脾臟과 脾臟의 혼합으로 보며 더욱이 脾臟의 기능을 위주로 보고 있다²⁴⁾. 脣장은 전체의 길이 12~15cm, 폭 약 5cm, 두께 약 2cm, 무게 70g 정도의 편평한 실질장기이다²⁵⁾. 따라서 가로의 길이가 세로(두께)의 길이보다 훨씬 크므로 수평선 위주의 臟器임을 알 수 있다. 이는 脣장의 外竅인 口唇도 역시 가로로 길고 세로로 짧은 水平性的 外竅가 되어서 동일한 形態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水平性的 形象은 하늘을 닮아 動物을 形象하여 움직이고 氣의 出入을 위주로 하게 되는 것이다. 또 특히 上七竅의 水平性 外竅임에도 입은 눈과 반대로 아래턱이 움직인다. 顏面의 上部에 위치한 水平性 外竅로 上下中 下部에 動的인 작용의 樞가 있으니 이에 따라서 口唇은 陽明經의 영향을 받는데 上顎은 靜하고 下顎은 動하므로 動하는 下顎은 手經에 配屬하여 手陽明大腸經이 主하고 靜하는 上顎은 足經에 配屬하여 足陽明胃經이 配屬된다.

3. 垂直的 外竅(上七竅 중에서)

垂直的인 外竅는 上七竅 중에서 鼻, 耳이다. 垂直的 外竅는 앞에서 언급했듯이 “竅豎者, 皆有陰陽升降之氣往復於中”이라고 하여 땅에 근원한 氣의인 植物은 升降을 위주로 하므로 땅에서 하늘로 수직으로 올라오는 植物을 聚象하여서 垂直的 外竅 역시 植物처럼 靜하는 外竅에 속하고 氣運의 升降을 위주로 사용하는 外竅에 속한다. 실제로 鼻와 耳는 上七竅 중에서 안 움직이는 外竅이며 이들의 靜的 作用으로 인하여 氣의 升降이 이루어진다.

1) 鼻

(1) 鼻의 발생

《金匱要略》에서 “西方白色은 肺로 통하며 鼻로 開竅하며 肺에 精을 저장한다. 무릇 12經脈 365絡의 氣血이 얼굴로 상승하여 空竅로 주행하는데 그 宗氣가 코로 나온다”라 말하고 있다²⁶⁾. 이처럼 코는 陽中の 陽이 뭉쳐서 솟은 것으로 天氣를 받아들인다.

(2) 鼻의 臟腑와 經絡과의 관계

① 鼻와 五臟六腑의 관계

코는 天氣를 받아들이니 肺의 竅가 된다. 肺氣는 코로 통하는데 肺氣가 조화로우면 코가 향취를 맡을 수 있다. 코는 중앙이니 脾에 속한다. 코는 胃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孫一奎의 《赤水玄珠全集》에서 “코를 이루는 陽氣, 宗氣는 胃에서 발생한 氣이다. …… 만약 배가 고프거나 過食을 하거나 飢餓가 심하여 脾胃의 生發之氣가 손상되면 營運之氣가 상승하지 못하여 邪氣가 코를 막는다. 코가 막히면 향취를 맡을 수 없다. 胃를 자양시켜주면 營氣가 건실해지고 陽氣와 宗氣가 상승하여 코가 통하게 된다²⁷⁾.”고 하여 코와 脾胃의 관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五氣가 코에 들어오면 心肺에 저장되니 心과도 관계한다²⁸⁾. 《入門》의 臟腑篇에는 心主臭라고

23)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學校: 醫方類聚,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378.

24)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대구, 醫門社, 1972, pp.149~152.

25) 노호희 외 3인: 人體解剖學, 서울, 高文社, 1991, p.243.

26) 王肯堂: 六斗準繩,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9, p.524.

27)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p.132.

28) 張介賓: 景岳全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언급하고 있다²⁹⁾.

② 鼻의 臟腑配屬

코는 얼굴의 중심으로 五臟의 精氣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다. 根부위에 心肺가 위치하며, 그 주변에 六腑가 있으며, 아래에 生殖器가 있다³⁰⁾.

鼻梁은 肝, 鼻梁의 좌측은 膽, 鼻孔주위(方上)는 胃, 鼻端(面王)은 脾이다. 山根은 心, 코중앙은 大腸, 面王以上은 小腸, 코옆은 腎, 面王以下는 子宮과 膀胱에 해당한다. 鼻柱 중앙의 돌출여부로 三焦의 기능을 알 수 있으며, 鼻孔의 방향으로 방광괄약근의 작용을 알 수 있고, 鼻柱의 길이가 大腸의 길이를 의미한다³¹⁾.

③ 鼻의 經絡關係

足陽明胃經은 코를 循하며, 手陽明大腸經은 코를 끼고 上行한다. 手太陽小腸經의 支脈은 顛(광대뼈)로 上行하여 코로 抵한다³²⁾.

(3) 鼻의 기능

코는 肺의 竅이며 宗氣가 지나는 길이 되며, 心肺의 門戶이다³³⁾. 陰陽이 제대로 오르내리고 氣血이 고르면 숨쉬기가 순조롭고 營衛가 잘 돈다³⁴⁾. 코는 인체의 共鳴器, 空調器이며 嗅覺器官이다³⁵⁾. 따라서 人體에서 코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天氣를 吸入하여 호흡을 하는 기능과 香臭를 맡는 嗅覺機能이다.

코는 얼굴의 중앙으로 色診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靈樞·五色>에서 五色은 明堂으로 발현되어 지는데 明堂은 鼻라고 말하고 있다³⁶⁾.

(4) 鼻의 垂直과 水平性的 이해

鼻는 肺의 外竅가 되어서 호흡의 상태와 肺의 기능을 鼻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肺는 胸腔 內에 있는 한 쌍의 반원추상의 기관이다. 肺의 모양은 원추형으로 위로는 뾰족하고 아래는 橫隔膜에 닿아 있는데 이는 높이(세로)가 높고 가로길이가 높이보다는 짧은 상태이다. 따라서 垂直性을 위주로 형성된 장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폐의 外竅인 鼻 역시 垂直으로 길은 垂直性的 外竅가 되어서 동일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垂直性的 形狀을 한 鼻는 땅을 닮아 植物을 形狀하여 靜的이며 升降을 爲主로 할 뿐 出入을 爲主로 하지는 않는다.

2) 耳

(1) 耳의 발생

귀는 陰部位에서 陽이 뭉쳐서 솟은 것으로 宗氣가 모여서 된다.

(2) 耳와 臟腑, 經絡과의 관계

① 耳의 五臟六腑와의 관계

<中臟經>에서는 “腎은 精神이 거처하는 곳이며 性命의 근본이다. 밖으로 귀와 通한다.”라 언급하고 있다. 또한 <素問·陰陽應象大論>에서도 “腎主耳”라 말하고 있듯이 귀는 腎이 주관하며, 腎의 外候가 된다.

귀는 또한 心과 연관이 된다. <素問·金匱眞言論>에서 “心은 귀로 開竅하며, 心에 精을 저장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귀와 心腎의 관계에 대하여 楊上善은 “腎은 水이며 心은 火이다. 水火相濟로 인하여 귀를 心의 竅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肝은 血을 저장하는데 귀는 血을 제공받아야 소리를 들을 수 있다.

心은 血을 주관하며, 肺는 氣를 주관한다. 心과 肺가 함께 宗氣를 담당하며, 肺는 白脈이 조희하는데, 宗氣가 귀로 상행하여야만 소리를 들을 수 있다.

脾胃는 升降의 중추역할을 한다. 脾胃의 升降이 失調되면 清陽이 상승하지 못하여 귀의 기능

p.483.
29) 李挺: 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89, p.91.
30)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63.
31) 樓英: 醫學綱目, 서울, 一中社, p.41.
32)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63.
33) 김영남역: 국역경약전서Ⅱ, 서울, 일중사, 1992, p.648.
34) 金夢禮: 醫方類聚,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p.453.
35) 李案雄: 顏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2.
36)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98.

이 失調된다³⁷⁾. 이처럼 귀는 五臟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② 耳의 經絡關係

《靈樞·口問篇》에서 귀는 宗脉이 모이는 곳이다³⁸⁾라고 하였다. 또한 《靈樞·邪氣臟腑病形篇》에서는 12經脈과 365絡脈의 氣血이 모두 열굴로 상행하여 空竅로 주행하는데 그 別氣가 귀로 들어가면 소리를 듣는다고 언급하고 있다³⁹⁾. 이처럼 귀는 12經絡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5絡脈 중의 手太陰肺絡은 귀속으로 들어가고 陰蹻脈과 陽蹻脈의 經氣도 귀로 통한다.

특히 귀에는 三焦經, 小腸經, 膽經이 流注한다. 귀앞의 특정점의 함몰 융기로 보아 그 소속된 經脈의 병을 알 수 있다. 耳門, 聽宮, 聽會의 3개의 經穴點이 함몰된 사람의 평형감각과 청각은 융기된 사람에 비하여 우둔하다.

耳廓의 두께, 얇은 정도에 의한 三焦 小腸 膽의 기능을 관찰한다⁴⁰⁾.

手太陰小腸經의 所生病은 귀가 들리지 않고, 눈이 노랗고 볼이 붓는다. 聽宮穴의 근처가 거무스름해지거나 작은 발진, 皮屑이 생긴다.

手少陽三焦經의 所生病은 눈초리나 볼이 아프고, 귀앞 어깨 팔 등이 전부 아프다. 耳門穴의 근처가 항상 거무스름하고 작은 발진과 皮屑이 나타난다.

足少陽膽經의 所生病은 缺盆의 부위가 부어서 아프다. 聽會穴의 근처가 항상 거무스름하고 작은 발진과 皮屑이 나타난다.

(3) 耳의 기능

귀는 청각을 담당하며, 평형감각에 관여한다. 왼쪽 귀는 左腎과 관계하며 낮에 작용을 한다. 아름다운 소리를 많이 들어야 左腎이 튼튼해진다. 오른쪽의 귀는 右命門과 관계하며 밤에 작용

이 많다. 밤에 좋은 소리를 많이 들어야 右命門이 좋아진다.

귀는 腦를 주관하고, 心胸에 통하여 마음을 사령하는 곳이며, 腎의 예후를 알 수 있다. 腎氣가 왕성하면 귀가 맑아 밝게 들리고, 腎氣가 허약하면 귀가 어둡고 흐리다⁴¹⁾.

(4) 耳의 垂直과 水平性的 이해

耳는 腎의 外竅가 되어서 청각을 듣고 腎의 기능을 耳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이다. 腎藏의 크기는 길이가 약 10cm, 폭이 5cm, 두께가 2.5cm이며 중량은 약 130g이다⁴²⁾. 콩팥은 팔알 또는 콩 모양으로 양측에 두개가 있는데 이는 세로가 길고 가로(폭)가 좀 짧은 편에 속한다. 따라서 垂直性を 위주로 형성된 장기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腎의 外竅인 耳 역시 垂直으로 길은 垂直性的의 外竅가 되어서 동일한 형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垂直性的의 형상을 한 耳는 땅을 닮아 植物을 形狀하여 靜的이며 升降을 위주로 할 뿐, 出入을 위주로 하지는 않는다.

4. 一은 陽, 二는 陰

《靈樞·九鍼十二原論》⁴³⁾에 “陽中之少陰, 肺也. 其原出於太淵, 太淵二, 陽中之太陽, 心也. 其原出於大陵, 大陵二, 陰中之少陽, 肝也. 其原出於太衝, 太衝二, 陰中之至陰, 脾也. 其原出於太白, 太白二, 陰中之太陰, 腎也. 其原出於太谿, 太谿二.” 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와 같은 內經의 臟象理論을 살펴보면 횡격막을 기준으로 膈膜上은 天을 象徵하여 陽, 膈膜下는 地를 상징하여 陰으로 구분하였고 다시 하나만 있는 臟氣인 肝과 心은 陽, 둘인 臟氣인 肺, 腎은 陰이 되어 心은 陽中之陽인 太陽이고, 肺는 陽中之陰인 少陰이며, 肝은 陰中之陽인 少陽이고 腎은 陰中之陰인 太陰이 되는 것이다.

37)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1, p.86.

38) 楊維傑: 黃帝內經靈樞經解, 臺灣國風出版社, 1991, p.261.

39) 傳統醫學研究所: 今釋黃帝內經靈樞, 서울, 성보사, 1995, p.58.

40) 李案雄: 顔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3, p.180.

41) 金赫濟: 魁註註解 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88, p.50.

42) 노호희의 3인: 人體解剖學, 서울, 高文社, 1991, p.264.

43)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13.

인체의 臟象이 이러하므로 당연히 人身의 九竅도 이에 합당하리라고 본다. 하나있는 코와 입, 前陰과 後陰은 陽에 속하며 둘로 되어있는 귀와 눈은 陰에 속한다. 즉 이는 水平性を 動物性으로 보아 出入하고 垂直性を 植物性으로 보아 升降하는 작용력을 설명하였지만 여기에 다시 一과 二의 區分이 되어서 水平性인 눈과 입도 하나로 이루어진 입은 陽에 속하고 둘로 이루어진 눈은 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또, 垂直性은 귀와 코도 一로 이루어진 코는 陽에 속하고 二로 이루어진 귀는 陰에 속하므로 水平, 垂直의 개념과 一과 二의 개념으로 다시 耳目口鼻를 분석할 수 있다.

5. 下二竅

二竅는 前陰과 後陰이다. 前陰과 後陰은 인체의 아래부분에 있어서 下二竅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醫學入門·臟腑總論》⁴⁴⁾는 “天六府氣表, 其體在上, 其用在下(膽胃膀胱大腸小腸). 地五藏, 血裏, 其體在下, 其用在上(耳目口鼻).”이라하여 하늘을 상징한 六腑는 위에서 아래하기 때문에 下二陰인 前陰과 後陰을 통하여 반응을 하여주고 땅의 상징인 五藏은 아래에서 위로 하기 때문에 上七竅인 耳目口鼻에서 五藏의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素問·金匱真言論》⁴⁵⁾는 “北方黑色, 入通於腎, 開竅於二陰.”라고 하여서 二陰은 大便과 小便의 작용을 맡고 있는데 이러한 기능은 腎陽의 氣化作用에 의하여 이루어진다⁴⁶⁾. 그리고 신장은 五藏 중에 가장 하부에 있어서 排泄機能과 관련이 많이 있게 된다.

따라서, 下二竅는 六府의 外竅가 되어서 傳化之路의 발현이 되고 또, 腎臟의 발현도 下二竅에서 나타난다.

1) 前陰

(1) 前陰의 발생

《素問·厥論》에 “前陰者, 宗筋之所聚, 太陰陽明之所合也.”라고 하여 전음은 太陰과 陽明이 합하여 宗筋이 모인 것이다.

高⁴⁷⁾는 “《痿論》云 入房太甚, 宗筋弛縱. 故前陰者乃宗筋之所聚. 陽明主潤宗筋, 而陽明胃府, 水穀之精, 又借太陰脾土以運行, 故宗筋乃太陰陽明之所合也. 時當春夏, 則人身陽氣多而陰氣少, 陰氣雖少, 陽之守也. 時當秋冬, 則人身陰氣盛而陽氣衰, 陽氣雖衰, 陰之使也.”라고 하여 太陰과 陽明의 합하여 宗筋이 뉘를 說明하였다.

(2) 前陰과 臟腑, 經絡과의 관계

① 前陰과 臟腑와의 관계

宗筋의 所聚는 太陰, 陽明이므로 脾胃의 合이 宗筋이 되어서 前陰이 이에 속한다⁴⁸⁾. 前陰의 질환인 疝症은 肝에 속하고 宗筋의 筋은 肝에 속하므로 前陰은 肝에 속한다. 前陰은 下二竅이므로 腎皆竅於二陰하므로 腎에 속한다.

따라서 그 根은 腎臟에 있고 직접 肝에 연락하므로 肝主筋이되며, 한쪽으로는 膀胱에 연결되어 尿道로 小便이 배출된다. 小便은 手少陰心이 血을 만들고 남은 汚水이므로 前陰은 少陰君火의 심부름꾼이 된다⁴⁹⁾.

② 前陰과 經絡과의 관계

前陰은 수많은 經絡이 얽고 지나가는데 그 대표적인 經絡은 肝經과 督脈이다. 그리고 脾, 胃經은 肝經에 絡하여 入하고 腎, 膀胱經도 會陽穴이나 近處穴位에서 前陰을 옆으로 통과하고 있다. 그 외 任脈도 前陰을 얽고 있다.

(3) 前陰의 기능

前陰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排尿機能과 性的作用的의 機能이다.

44) 李挺: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1, p.91.
4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p.21.
46) 王琦: 中醫藏象學,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24

47) 高世拭: 黃帝素問直解, 北京,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p.326.
48)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 p.310.
49) 宋点植: 醫學輯要, 대전, 文耕出版社, 1992, p.72.

(4) 前陰의 垂直, 水平性의 이해

前陰과 後陰이 모두 肺의 영향을 받으나 心은 營氣를 主하고 肺는 衛氣를 主해서, 營氣의 糟粕은 前陰으로 나오고 衛氣의 糟粕은 後陰으로 나오는 것이다⁵⁰.

前陰은 小腸에서 泌別淸濁하여 氣化된 액체는 小便으로 나가고, 찌꺼기는 大便으로 나가니 六府의 天氣가 下하는 표현이며 그 중 心 小腸의 營氣의 氣化作用으로 액체로 排泄이 되는 것이다. 이는 前面을 主하는 陽明과 太陰의 작용과 上下概念의 위에서 아래로 하는 작용이 어우러져서 前陰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2) 後陰

(1) 後陰의 발생

《素問·五藏別論》은 “魄門亦爲五藏, 使水穀不得久藏.”라고 하여서 大腸之肛門을 魄門, 廣腸, 肛門, 後陰, 魄腸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大腸을 이루는 金氣가 모여서 된 것이다.

前陰이 앞을 主하는 陽明과 太陰이 모여 되었다면 後陰은 뒤를 主하는 太陽과 少陰이 모여서 될 것 같은데 아직 확인할 만한 문헌은 찾지 못하였다.

(2) 後陰과 臟腑, 經絡과의 관계

《靈樞·經別》은 “足太陽之正 別入于膈中 其一道下尻五寸 別入于肛 屬于膀胱 散之腎 循膂 當心入散”라고 하여 足太陽의 別經이 肛門에 入함을 알 수 있다. 그밖에 任, 督脈이 後陰을 엮고 있으며 腎經과 膽經이 後陰의 周圍를 지나간다.

(3) 後陰의 기능

後陰은 糞便을 排泄하는 通路가 된다⁵¹. 《素問·五藏別論》 “魄門亦爲五藏, 使水穀不得久藏.”라 하여 ⁵²는 “魄門, 大腸之肛門也. 大腸爲肺

府, 故名魄門. 六府爲五藏之輸寫, 而魄門亦爲五藏使. 既爲五藏使, 則腸胃之水穀, 不得久藏, 是魄門合藏府而總爲之傳使也.”라고 하였다.

大腸이 하는 일은 小腸에서 내려오는 物質의 糟粕을 整理하고 肺에서 내려오는 맑은 氣를 흡수해서 氣와 質의 혼합체를 만들어 後陰으로 傳送하면, 後陰은 그대로 받아서 淸濁을 가리지 않고 바로 방출해버리며 新鮮한 地氣를 받아 들어서 大腸으로 올려보내는 것이다⁵³.

(4) 後陰의 垂直, 水平性의 이해

前陰과 後陰이 모두 肺의 영향을 받으나 心은 營氣를 主하고 肺는 衛氣를 主해서, 營氣의 糟粕은 前陰으로 나오고 衛氣의 糟粕은 後陰으로 나오는 것이다⁵⁴.

後陰은 大腸에서 만들어진 大便을 放出하니 六府의 天氣가 下하는 표현이며 그 중 肺 大腸의 衛氣의 氣化作用으로 배설이 되는 것이다. 이는 後面을 主하여 固體의 물질개념⁵⁵과 上下概念의 위에서 아래로 하는 작용이 어우러져서 後陰의 작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5) 後陰과 鼻의 관계

肺는 五藏을 덮고 있어서 五藏의 日傘이라고 하여 五藏의 天이 되어 二十四空으로 天의 二十四節氣에 응해 天氣를 받아들여 大腸으로 傳해서 大腸으로 하여금 地에 방출케하여 天地의 氣가 서로 통하게 하니 이 관계로 肺와 大腸이 南北으로 각각 떨어져 있다. 肺가 天氣를 받아들일 때에는 氣이므로 無形이었으나 中關을 지나서 臍를 通過할 때에는 벌써 有形之物로 변하고 氣中에도 陰과 陽이 있어서 陰은 大便이 되어서 後陰으로 放出되고, 陽은 小便이 되어서 前陰으로 방출하는 것이다⁵⁶.

p. 97.

53) 宋点植: 前掲書 p. 71.

54) 宋点植: 醫學輯要, 대전, 文耕出版社, 1992. p. 72.

55) 前陰은 液體로서 後陰 보다는 더 많이 氣化된 狀態로 볼 수 있다.

56) 宋点植: 前掲書 p. 70.

50) 宋点植: 醫學輯要, 대전, 文耕出版社, 1992. p. 72.

51) 王琦: 前掲書(中醫藏象學) p. 624.

52) 高世栻: 黃帝素問直解, 北京,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따라서 鼻孔은 肺의 外竅가 되어서 天氣를 吸하여 大腸으로 傳해주고 肛門은 魄門이 되어서 地氣를 吸하여 肺에 傳해준다.

6. 上竅와 下竅의 연계

《靈樞·邪客篇》⁵⁷⁾에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天有風雨 人有喜怒 天有雷電 人有音聲 天有四時 人有四肢”라고 하여 人體의 九竅를 땅의 九州에 比喩하였다. 이에 대하여 鄭⁵⁸⁾은 다음과 같이 解說을 하였다.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어 만물을 비취주는 것과 같이 사람에게도 두눈이 있어 萬象을 밝게 보는 것이요 땅에 荊州, 梁州, 雍州, 豫州, 徐州, 揚州, 青州, 兗州, 冀州 등의 九州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耳目口鼻의 上竅와 下의 前後二陰을 합한 九竅가 있는 것이므로 淸陽은 上竅로 出하니 이 陽中에도 陰陽이 있으므로 目은 日月의 象으로 監察官이라하고 鼻는 淸陽을 吸入하며 五臭를 分別하는 審辨官이라 하니 이 目과 鼻는 陽中の 陽이요, 耳는 五音을 듣는 採聽官이라 하고 口는 言語를 하며 五味를 食하는 出納官이라 하니 이 耳와 口는 陽中の 陰이 되는 것이며 下의 陰에도 陰中の 陰陽이 있으니 下의 前陰은 陰中の 淸에 該當하며 小便을 排出하는 陰中の 陽인 것이요 後陰은 陰中の 濁에 該當하며 大便을 排出하는 陰中の 陰인 것이라 하겠다.

王⁵⁹⁾은 “五藏主藏而不瀉, 故走空竅而無形, 爲精神之府. 六府主瀉而不藏, 故走濁竅而有形, 爲傳化之路.”라고 하였다. 上七竅는 無形의 精神의 作用을 表現하고 下二竅는 有形의 六府의 傳化를 돕는다고 서술하고 있다.

上七竅는 열려있거나 아니면 수시로 여닫는 역할을 하지만 下二竅는 하루에 한번(後陰) 또는 하루에 5-8회(前陰)만 열려있고 평상시에는 항상 닫혀있다. 이는 하늘에 該當하는 上七竅는 天을

상징하여서 항상 열려있거나 변화가 용이하나 땅에 해당하는 下二竅는 地를 상징하여 열릴 때만 열고 평소에는 닫는 것이다. 따라서 上七竅 중에서 가장 아래에 있어서 地氣를 많이 받는 입도 역시 七竅 중에서는 가장 開閉를 중시하여 평소 말을 하지 않거나 음식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닫는 것을 위주로 한다.

III. 結論

이상과 같이 九竅에 대하여 水平性和 垂直性의 관점을 위주로 분석하고 上七竅와 下二竅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1. 水平은 神機가 出入하는 것으로 天을 本한 動物性을 상징하여 움직이고 垂直은 氣機가 升降하는 것으로 地를 本한 植物性을 상징하여 靜的이다.

2. 眼과 口脣은 水平性으로 이에 開竅하는 肝과 脾도 역시 水平性이다. 따라서 動的이며 氣運의 出入을 위주로 한다.

3. 鼻와 耳는 垂直性으로 이에 開竅하는 肺와 腎도 역시 垂直性이다. 따라서 靜的이며 氣運의 升降을 爲主로 한다.

4. 一은 陽이고 二는 陰이 되어서 하나인 鼻와 口脣은 陽이요, 둘인 眼과 耳는 陰이 된다.

5. 前陰은 앞을 主하는 陽明과 太陰이 합하여 이루어져 陽인 小便이 排出되고 後陰은 뒤를 主하여 陰인 大便이 排出된다.

6. 五藏은 無形의 精神을 上七竅에 開竅하고 六府는 有形의 傳化를 前陰과 後陰에 開竅한다.

= Abstract =

A study on the nine orifices - from horizontal and vertical views -

Kang, Jung-soo

57) 洪元植: 前揭書(靈樞) p.298.

58) 鄭樹詰·尹暢烈: 醫學上에 나타난 天人相應,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5권 1호, p.114.

59) 王琦: 中醫藏象學,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97, p.624.

Dept. of Physi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Tae-Jon Univ., Taejon, Korea

參考文獻

In this paper the nine orifices were analyzed horizontally and verticall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upper seven orifices and lower two orifices was looked into specifically.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

1. Horizontal is the shenji (神機) which comes in and out, and it symbolizes animality based on heaven, so it is dynamic. Vertical is the qiji (氣機) which goes up and down, and it symbolizes vegetability based on earth, so it is static.

2. The shape of the eyes and lips is horizontal, so the shape of the liver and spleen which are related to the eyes and lips respectively is also horizontal. Thus the eyes and lips can move and the action of these are mainly concerned with the coming in and out of energy.

3. The shape of the nose and ears is vertical, so the shape of the lungs and kidneys which are related to the nose and ears respectively is also vertical. Thus the nose and ears remain still and the action of these are mainly concerned with going up and down of energy.

4. One means yang(陽) and two means yin(陰). so the nose and mouth which have one are yang, the eyes and ears which have two are yin.

5. The urethra consists of yangming(陽明) and taiyin(太陰) which control the front, so it draws out urine which is yang(陽). The anus controls the back, so it draws out feces which is yin(陰).

6. The upper seven orifices are related to the five viscera which control immaterial spirit. The lower two orifices are related to the six bowels which control material movement.

Key words : the nine orifices(九竅), horizontal(수평), shenji(神機), vertical(수직), qiji (氣機)

1. 金定濟·洪元植: 漢醫學辭典, 서울, 성보사, 1983.
2.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5.
3. 李旻: 編註醫學入門, 서울, 大星文化社, 1991.
4. 權相玖: 平面構成을 中心으로 한 平面基礎디자인, 서울, 學文社, 1986.
5. 高士宗: 黃帝素問直解, 北京, 河南科學技術出版社, 1982.
6. 楊力: 中醫疾病豫測學, 北京, 北京科學技術出版社, 1994.
7. 全國韓醫科大學 肝系內科學教授: 肝系內科學, 서울, 東洋醫學研究院, 1989.
8. 孫一奎: 赤水玄珠全集,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6.
9. 浙江省中醫研究所 湖州中醫學校: 醫方類聚,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1981.
10. 趙憲泳: 通俗漢醫學原論, 대구, 醫門社, 1972.
11. 노호희 외 3인: 人體解剖學, 서울, 高文社, 1991.
12. 王肯堂: 六斗準繩,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1979.
13. 張介賓: 景岳全書, 上海, 上海科學技術出版社, 1984.
14. 樓英: 醫學綱目, 서울, 一中社.
15. 김영남역: 국역경악전서II, 서울, 일중사, 1992.
16. 李案雄: 顏面望診法, 서울, 圖書出版 鼎談, 1992.
17. 吳國定: 內經診斷學, 서울, 大星文化社, 1991.
18. 金赫濟: 懸吐註解 麻衣相法, 서울, 明文堂, 1988.
19. 王琦: 中醫藏象學, 북경, 人民衛生出版社, 1997.
20. 許浚: 東醫寶鑑, 서울, 南山堂, 1991.
21. 宋点植: 醫學輯要, 대전, 文耕出版社, 1992.
22. 鄭閔喆·尹暢烈: 醫學上에 나타난 天人相應, 대전대학교 한의학연구소 논문집 5권 1호.